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고시반 3차 격려 모임 (11.02.)

- 일정 : 20.11.02.15:30(약 20분 ~30분간 진행)
- 장소 : 413 강의실
- 인원 : 약 10여명
- 모임내용
 1. 현재 공부 진행 상황 확인 : 토익, 회계 및 세법 공부 현황
 2. 합격수기 전달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기출문제(세법 및 회계학) 정리 지원자 확인
 4. 향후 고시반 운영 계획 안내

합격수기

■ 본 합격수기는 조세일보에 기재된 합격수기 내용입니다. 공부하는데 참고하시어 방향 설정하길 바랍니다.

■ 세무사 합격수기 1

1. 들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지면 불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건 최선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철학자 강신주 성장 문답에서 발췌) "정말로 그럴까?"라는 의구심에 4차까지 갈 자신은 없고, 설령 떨어져도 강신주 철학자님 말처럼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보자는 마인드로 시험 친 결과, 올해 3차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55기 세무사 안진우라고 합니다.

2. 학습전략

[1차시험 공부 전략]

① 회계학"기본서의 예제를 많이 풀어보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기본서 강의를 듣고 기본예제를 풀어본 후 재무는 '기출베스트', 원가는 객관식문제집을 가지고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가지 책에 너무 회독 수만을 늘렸다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루할 때는 다른 책을 풀어보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② 세법세법은 말문제가 거의 70%를 차지한 만큼 말 문제에 집중을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초시에 실수를 한 점은, '세무회계연습을 잘하면 1차 세법은 낚이다'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고 오히려 연습서를 위주로 풀다가 초시 1차 때에 세법을 겨우 과락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력은 그대로 회계학 2부로 이어져서 동차 때 회계학 2부 과락을 만들어낸 패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시에는 어려운 연습서보다는 기본서와 객관식을 숙달시키시면 동차 때 한결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③ 재정학재정학은 기본서 강의와 기본서 회독수를 올리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중에는 얇은 책이 있지

만 저는 기본서를 통해 기본적인 이해와 주요 단어 키워드를 암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제집은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기본서 챕터마다 문제가 있어 기본서 문제를 풀면서 핵심키워드를 자꾸 상기하였습니다.

④ 선택법선택법은 기본서 강의를 듣고 그 책에다 부족한 필기를 보충하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선택법은 비교적 그 난이도와 양이 적어 1월달부터 집중해서 단기간으로 끝내시기를 권장해드리며 그 전에는 회계를 가장 숙달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2차시험 공부 전략]

① 회계학 1부세무사 회계학 1부는 재무와 원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두 과목 모두 그 출제경향과 공부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문제의 출제 트렌드는 여러 가지 단원의 기본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습서의 지엽적 문제는 지양하고 기본서 예제 위주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②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는 그 휘발성이 다른 과목보다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단원 별 필수 문제의 문제 푸는 틀과 핵심 내용을 서브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후 객관식 문제와 연습서 필수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서브노트를 찾아 복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조화시키면 자신의 약점을 쉽게 찾아내어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③ 세법학 1부세법학 1부는 우선 법령의 이해를 한 후에 암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를 찾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세법학도 그 휘발성이 매우 커서 한정된 시간에 회독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즉 동차용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서에 빠진 내용을 옮겨 적어 요약서만 보아도 동차용 기본서를 다 보는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④ 세법학 2부세법학 2부는 1부 보다 암기의 요소가 강합니다.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시기를 권합니다. 2부는 가볍게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이 또한 1부처럼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특법은 그 내용이 워낙 어렵고 양이 매우 방대하여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얇고 넓게 공부하여 조특법에 최소 5점이라도 맞도록 함이 최고이자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세법학은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저는 전화스터디를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하고 보충하면서 시

험에 가까울수록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고 시험 당일에도 제가 피드백 받은 부분이 출제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 수험생활 중 슬럼프극복방법

저는 고시공부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스타트할 때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속도가 줄어들면서 일정해집니다. 저는 슬럼프 극복 방법으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법'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고시 생활이 너무 외로워서, 이성 친구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계속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외로움은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끝낸 후에 저의 유일한 슬럼프 극복 방법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체력관리로서 하루의 공부를 한 후 힙합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 방법도 백인백색이듯이 슬럼프 극복 방법도 백인백색이라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기를 권합니다.

4. 마치면서

최근 세무사 시험의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수험생의 수준도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길어 2년일 줄 알았던 시험이 거의 4년에 이르러 합격을 하였습니다. 만약 세무사 시험을 입문하실 때는 최소한 3년은 감당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하시고 입문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AI의 도입과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기장보다는 컨설팅이 세무사의 수익 원천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세무업계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과 마케팅이 구축되지 아니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무사로서 세무업계의 컨설팅에 IT 업을 접목시키어 PC나 앱을 통하여 세무컨설팅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 세무사 합격수기 2

1. 들어가며

이번에 제 55회차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손은서입니다.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하여 수업을 듣던 중 합격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합격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여름방학부터 수험공부를 시작하여 약 1년 2개월 정도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험을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 수험 생활 초반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이기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짜서 그대로 실행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기 계획, 달 별 계획, 주 별 계획, 그리고 하루 계획 등 큰 틀을 그려 놓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좁혀 나가면서 서서히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 계획대로 공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말에는 밀린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이 동차 합격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합격 수기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누군가의 수험생활의 불안함과 막막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2. 전반적인 수험 생활

[2017년 4월]경영학과 전공 수업에서 배운 경제학원론과 회계원리 그리고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외에는 세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무지한 상태로 세무사 1차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불합격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번 시험장 분위기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봄을 통해서 다음 해의 1차 시험에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2017년 6월~ 2017년 8월]본격적인 학원의 가을 기본 종합반을 수강하기 전 예습하는 마음으로 재정학과 법인세 기본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했습니다. 낯선 과목을 몇 개 정도 미리 접하고 느린 속도지만 처음 개념을 정확히 배우으로써 실제 8월 말에 수강하는 종합반의 빠른 수업 진도에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2017년 12월]학원의 가을 기본 종합반을 실강으로 들으며 본격적으로 수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제 의지대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 나중에 진도가 밀릴 것이 염려되어 실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내 독서실에서 꾸준히 공부했는데 학원 내 다른 사람들 역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준비생이기 때문에 같은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이 용이하고 세무 관련 수험서를 살 때도 바로 옆에서 살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달별 계획, 주별 계획, 그리고 하루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날 배운 내용은 그 날 복습하려고 했고 만약 못했거나 밀렸다면 복습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8년 1월~ 2018년 4월]가을 기본 종합반에 연이어서 실강으로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1차 시험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식 문제집의 회독수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

종합반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복습하려고 했고 종합반 모의고사에서는 실전의 마음으로 최대한 전부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 연습서를 돌리면서 문제 푸는 속도를 늘려갔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5일간 월요일 원가회계, 화요일 재무회계, 수요일 법인세, 목요일 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금요일에는 재정학과 행정 소송법을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 한 달간 반복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학원에서 하는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5월~ 2018년 8월] 2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원하는 강사님을 선택하여 수강하였고 세법학 모의고사 과정만 학원에서 수강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시험을 친 후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판례에 대해서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개념강의를 들어서 조금이나마 복습과 연습서 풀이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촉박하게 공부하면서 2차 시험이 가까워지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기에 2차 시험을 남기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이제까지 배운 내용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점점 회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2차시험 학습방법

[재무회계]

동차로 준비하면서 온라인 강의와 연습서로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빠르게 들은 이후에 재무회계 연습서 안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특히 연습서 안의 분개 문제가 재무회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실전 감각을 위하여 학원 모의고사 중 몇 개를 풀었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써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원가회계]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연습서만 풀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와 같은 선생님의 연습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 강의에서 배운 방법을 토대로 연습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나 중요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푸는 과정을 손에 익히려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실전 감각을 위하여 학원 모의고사 중 몇 개를 풀었고 반복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세무회계]

수험생활 중 가장 큰 벽이라고 느껴졌고 끝까지 제대로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먼저 세무회계 관련된 기본 강의를 전부 완강한 다음에 연습서를 3회독 정도 돌리고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자고 큰 줄기를 그린 다음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세무회계 완강을 위해 일주일 중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 날 들은 강의 내용을 그 날 최대한 복습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관련 이론이 요약된 책을 계속 다시 보면서 세무회계 문제 풀이를 위한 이론을 다졌습니다. 그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자세히 적혀 있는 기본서를 펴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5회 정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고 다른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푼 5회를 다시 돌리면서 낯선 문제들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세법학]

기본 강의를 듣고 필기를 전부 따라하며 기본을 익혔습니다. 이후 주요 법령과 판례가 요약된 책에 필기를 옮겨 적고 최근 판례나 모의고사에서 배운 주요 판례를 포스트잇을 붙여 단권화 했습니다. 새로 배운 중요한 내용을 더해가면서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매일 봤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법령과 판례를 정말 전부 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세목을 외우고 토요일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복습하였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세목 전부를 볼 수 있도록 암기했습니다. 마지막 2주에는 이제까지 보았던 모의고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를 몇 개 뽑아서 실제 시간을 채고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주 요약된 책을 보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면서

제게 맞는 공부 방법이라 위와 같이 공부했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공부 생활패턴과 공부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글을 통해서 수험 생활 중 답답함을 없애거나 세무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공부패턴에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머리를 쉬어 줄 겸 잠시 20분 정도 자신만의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날까지 공부가 끊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험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꼭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의 시작을 함께 해주고 항상 응원해준 이선정, 이경형, 육근탁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언제나 응원해준 부모님과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리고 2차 시험 준비를 같이 하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친구들인 김효원, 조상우, 김희진, 박진범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세무사 합격수기 3

1. 들어가며

많은 합격생분들도 같으시겠지만 합격소식은 저에게 기쁨과 안도감,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모두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선 합격했다는 기쁨과, 수험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에서 사회인이 될 첫 단추를 끼우고 있다는 두려움과, 교육 등록, 수습처 문제 등 밀려드는 할 일들에 당혹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더욱 급격한 변화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를 꼽자면 역시 합격의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

2. 시험 응시동기

저는 안정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면서도 중장년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바랐습니다. 또 전문인력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제 소망에 세무사보다 더 잘 맞는 직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전반적인 수험 생활

수험생활은 생각보다 지식이나 두뇌보다는 마음가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무사 응시생이 회계관련학과 출신이거나 경력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응시 전 가지고 있던 지식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그에 기반한 판단력,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꾸준함이 중요한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부방법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아니면 심지어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같은 고민은 정신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사실 모든 수험생활이란 합격관문을 넘으면 족한 것으로, 이미 합격한 세무사들의 공부방법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즉, 정답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좋은 방향을 잘 골랐다면 스스로를 믿고 최소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까지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이란 결국 꾸준히 실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험생활동안 세무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로서는 그 것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인생의 중대한 고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눈앞의 공부에 집중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편 아무래도 수험공부는 지루하고 우울한 활동이라서 여러가지 유혹이나 감정변화에 휩쓸리면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안타깝지만 최대한 빨리 평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수험생활의 가장 힘든 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사회문제나 친구문제에 민감했는데, 수험기간 동안에는 되도록 뉴스도 보지 않고 보고싶은 친구와 가족들과의 연락도 자제했습니다. 감정변화가 심하면 꾸준히 공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토하지 않는 꾸준함은 자칫하면 우둔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공부방법인 것 같은데도 그것을 응시 직전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꾸준함을 유지하되 판단을 위한 촉각은 민감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에 체력이 심각히 저하된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차까지의 수험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난 시점에 위험부담이 큰 선택으로 느껴졌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오던 전략이 잘못된 것을 느낀 순간엔 과감한 전환도 시도해 봐야합니다. 물론 운동을 한번 시작하고 나서는 2차시험때까지 일주일에 반드시 2-4회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4. 수험생활 생활패턴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종로나무학원근처에 살면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약간 힘들더라도 학원에서 정보를 얻고 더 자극 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등원하여 10시 30분에 하원하였습니다. 등원과 하원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와 스터디를 꾸려 출석체크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시간은 1시간 반 정도씩 할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쉬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학원에 나왔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에는 만나질 정도를 쉬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는 2박 3일 정도 집에 다녀왔지만 판단에 따라 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던 12시간을 공부하던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데 힘든 날이 여러 번 있으면 점차 우발적으로 공부를 쉬는 등 오히려 공부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하기 위하여 등원시간이나 식사시간이 30분정도 늘거나 주는 것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을 촉박하게 하는 타이머보다는 식사전후로 오전/오후/저녁타임으로 하루를 나누고, 날짜도 디데이 어플보다는 주단위/한 달 단위로 세었습니다.

5. 추천 공부 방법

수험가에는 흔히 이해와 암기, 개념과 문제풀이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되는, 이를테면 성적이라는 쌍두마차의 두 말과 같은 관계입니다. 저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기본반 - 심화반 - 객관식반 - 2차대비로 총 4시즌으로 나눠서 공부방침에 약간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본반은 무조건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심화반과 객관식 반에서는 이미 이해한 것을 정확히 출력하는 '연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차대비 시즌에는 새로 배우며 이해하는 것과 암기 및 출력연습을 동시에 했습니다. 각 과목의 기본반과 서술형 과목은 전부 강의를 듣되 실강과 인강을 적절히 혼합하였고 객관식과 2차시즌에서는 많은 강의를 생략하고 연습에 집중하였습니다.

6. 과목 별 참고서적

1. 재무회계 : 김현식 IFRS중급회계와 서브노트, 고급회계, 재무회계연습, 객관식재무회계 / 김재호 기출 BEST모의고사
2. 원가회계 : 김용남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연습서
3. 세법 : 정정운 세법개론 / 이승철 세무회계연습, 서브노트, 객관식세법 / 정병창 스터디가 I 이드, 세법학 I,II / 주민규, 하루에끝장내기
4. 민법 : 김춘환 세무사민법, 객관식민법
5. 재정학 : 정병열 재정학연습

7. 수험생들에게 남기는 조언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통해서 제게 도움이 되었던 마음가짐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이라는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 그 외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디 제때 올바른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설령 이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앞으로는 다른 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줍시다.

물론 수험생활의 실패가 실제로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는 것만큼 괴롭고 비생산적인 일은 없습니다. 헛된 희망일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성공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함께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소홀히 돌봤는데도 내 곁에 남아준 소중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나와 함께 수험생활을 보낸 유민이와 지인이, 재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 공인회계사 합격수기 1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홍은표입니다. 짧지 않은 수험기간 동안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합격의 날을 고대하며 버텼습니다. 길어지는 수험기간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는지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보다 빠른 합격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겠습니다.

2. 시기별 공부방법

(1) 기본 강의 수강

저는 학원 종합반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왕복으로 3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종합반을 다녔던 이유는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로 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통원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는 못하였으나, 매일 일찍 학원에 도착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통

원시간도 공부에 활용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자극이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되긴 하였으나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매일 이동하다 보니, 간단한 운동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배속을 높여 강의를 듣는 것이 더욱 집중이 잘 되는 타입임에도 학원에서 1배속으로 듣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본강의를 마친 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응용하는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모두들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여름방학 기간(7, 8, 9월)에는 연습서 강의를 듣는다는 말에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진도를 따라가느라 바빴습니다. 한 과목을 여러 번 보면서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할 시간이 없이 진도를 나가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가장 큰 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하는 객관식 시험이지만, 무엇이 중요한 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었고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기본강의를 듣던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할 것이며,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실력이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도를 나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2) 1차 시험

2018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실패한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터디도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 공부의 질보다는 양에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스터디를 활용하고,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였습니다.

1) 2018년 3월~6월

학교를 다니며 연습서 강의를 듣고 최소 2회독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긴 해도 주 50시간의 공부시간을 인증하는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50시간을 해야만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념을 체화하고 꼼꼼하게 필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저에게 맞는 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인증 스터디의 장점은 제가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를 꾸준히 채찍질할 수 있었고, 7월 고시반 입실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 2018년 7월~10월

고시반에서 연습서 스테디를 했던 이 시기가 제 실력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와 세법을 위주로 스테디를 했는데, 스테디원들이 수강한 강사가 모두 달랐던 점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각자 진도에 맞춰 연습서로 공부한 후 좋았던 문제를 공유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다양한 문제 유형과 풀이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의 팁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계 세법은 스테디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이 기간에 재무관리와 원가회계 연습서도 풀면서 동차기간 부담을 최대한 덜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답안지 쓰는 연습도 많이 하였습니다. 1회독 때에는 강의에서 꼼꼼히 필기한 대로 작성해보고자 하였으며, 회독 수를 높이면서 필요한 풀이과정만 남기고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답안지를 잘 쓰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용어를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며 실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2018년 11월~2019년 1월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매일 전과목을 봐야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써야만 했습니다. 어느 한 과목에 치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목별로 매일 문제 풀이를 인증하는 스테디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매일 40문제씩 풀었던 것은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 후 시험이 다가올수록 각종 기출문제를 풀며 전범위를 매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시간도 적절히 배분하며 모르는 개념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상법 암기노트를 보며 자투리시간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회독 수를 높이며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때 방대한 양의 책들을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하기 때문에 평소에 객관식 문제를 풀며 틀린 문제는 체크를 하고 2월에 볼 문제의 수를 줄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 틀리는 개념들은 따로 정리를 하고 반복하여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확실히 알았을 때 지워 나갔습니다.

4) 2019년 2월

틀렸던 문제를 반복하고, 각종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특히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지 연습하였습니다. 학원마다 모의고사의 유형이 다른데, 이를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

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3) 2차 시험(동차기간)

짧은 기간 동안 다섯 과목을 보아야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바로 시작하기 보다는 1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며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며 연습서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제외하고 별도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강의를 수강하며 가장 연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재무관리와 원가회계 과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루에 재무회계와 세법까지 모두 공부하고 싶었지만, 한 문제 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2차 과목의 특성상 모든 과목을 공부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신 있었던 세법 과목은 주 1회에 모여서 20~30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가는 공부량과 각종 모의고사 풀이로 인해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고시반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가 담기에 부족한 양까지 다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 있다고 소홀히 한 세법 과목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이 되자 감사와 세법을 소화하기 버겁다는 생각에 '일부 과목을 버려야하나'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차를 하겠다는 목표로 2차 공부를 시작한만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자 5월 말부터는 세법 파이널 연습서를 매일 1회씩 풀며,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며 전 범위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에 많은 과목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과목별로 매일 30문제씩 풀고 인증하는 스티디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1차를 준비할 때부터 저에게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 방법 덕분에 동차기간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30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내에서 과목별로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독 때는 작성한 답안지에 오답은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개념은 파란 펜으로 적은 후 빠르게 복습하였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1회독을 한 결과 2회독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

었고,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회독 수를 높이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는 따로 답안지를 빼서 정리하였고, 시험 1주일 전과 전날 훑어보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4) 2차 시험(유예기간)

2019년 2차 시험에서 원가회계를 제외한 4과목에 합격하였습니다. 사실 원가회계는 제일 좋아하고, 비교적 자신 있었던 과목이라 시험을 보기 전에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의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가회계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장 적은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 정답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를 골고루 풀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한 문제당 배점이 높은 문제를 과감히 버리지 못하여 오랜 시간 동안 풀다가, 비교적 쉬운 문제를 놓쳐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에는 '다른 수험생들도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유예기간에는 동차 때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도 다 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예생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의문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신 있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어가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예생일수록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 과목만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병행하며 시험공부를 하였습니다. 2018년 학교를 병행하며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1유예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강사들의 모의고사반을 수강하며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건드리기' 위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연습서 개념들을 짚 훑으며 꼭 필요한 필수개념들을 워드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원가회계 시험에는 서술형 출제 비중이 낮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차마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와 관련한 개념들을 쓰고 나오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고 시험 전날과 당일에 필수개념과 틀리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을 꼭 읽은 후 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결과 제 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3. 마치며

공부를 하며 때로는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합격의 날을 꿈꾸며 잘못된 점을 고쳐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효율적이진 않았을지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빠른 길을 걷지는 않았으나, 제가 실패하고 극복한 경험들을 통해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각종 유혹에 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를 떠올리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로 버텨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회계사 합격수기 2

1.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제 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김지현입니다. 저는 상경계열 전공이 아닌 언론홍보영상학부 소속으로 17년 2월에 회계사 시험에 진입하여 19년 1차합, 19년 2차에서 회계감사 1유예가 되었고 20년 2차에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진입 전 여러 합격수기들을 읽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비전공자로서 리스크가 있는 시험이라 판단하여 초반에 학기를 병행하며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휴학을 최소화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여러 합격수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제 수험생활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위주로 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1. 시험공부와 학교수업을 병행하던 시기 (2017년 2월~2018년 6월)

1) 17년도 1학기

베이스가 전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학기를 병행하며 반년정도 공부를 해보고 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회계원리는 중급회계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강의를 끝냈습니다. 17년도 1학기는 중급회계 완강을 목표로 하였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도를 나가는데 치중했습니다. 시험기간 제외한 기간에는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여름방학때 본격적으로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였고 Focus Timer 어플로 하루 순공부시간 9시간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공부시간을 채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9시간, 한 주 55시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2) 17년도 2학기

진도 상태로 보아 현실적으로 18년도 1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19년도 1차합격을 목표로 학기를 병행하였습니다. 2학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간을 재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월요일 학교 수업이 3시간이라면 9-3=6시간의 공부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학교수업에서 들었던 중급회계와 경제학, 원가회계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자동적으로 중급회계(1), 경제학 복습 1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겨울방학

겨울방학때 18년도 1차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경영학, 상법은 기본강의도 듣지 않은 상태였고 세법은

기본강의를 듣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총점 172.5점으로 의미가 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한 경험으로 CPA시험이 쉽지않은 시험이라 느껴 동기부여가 되었고, 시험접수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19년도 1차시험을 응시할 때 신경을 덜 써도 되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저처럼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경험삼아 시험을 한 번 치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18년도 1학기

12학점을 수강하고 마찬가지로 수업이 없는 날은 9~10시간,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시간을 10시간에서 제외한 시간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세법개론 강의가 끝난 후 1회 복습 후 바로 세무회계연습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이것이 세법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9년도 2차시험까지 세법은 2주 이상 놓는 일 없이 꾸준히 공부하였고 그 결과 19년 1차, 2차시험때 세법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18년 1학기에 회계, 세법 2차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며 회계, 세법을 평균적인 재시생 수준의 실력까지 끌어올렸고 그 결과 학교 고시반 시험에 합격하여 고시반에 입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습서 강의를 들 때 강의를 먼저 듣지 않고 최대한 문제를 풀어본 다음, 그 문제에 대한 강의를 빠르게 듣는 방법으로 수강한 것이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고시반 입실과 1차시험대비 (2018년 7월~2019년 2월)

고시반에서 회계, 세법 스터디로 연습서 2회독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재무관리 연습서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였고 스터디로 1회독을 추가로 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연습서를 보지 않고 객관식을 풀며 1차시험대비를 했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인 공부방법은 여러 합격수기에 나와있으므로 저는 제가 주효했다고 느꼈던 1차기간 팁 위주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항상 실전과 비슷하게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기간동안 시간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로풀기를 하면서도 항상 세법 문제당 2분, 상법 1분이하, 경제 70초 등 항상 타이머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본다는 마음으로 시간 압박속에서 풀었습니다. 회계 기베모의고사는 55분 시간제한, 파이널 모의고사는 60분 시간제한으로 풀었습니다. 또 2월달엔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 때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풀기 위해 원가 기출에서 표본추출하여 10문제, 정부회계 표본추출하여 5문제 도합 50문제 시간제한 70분 혹은 75분으로 잡고 풀었습니다. 또한 경제, 경영 등 기출문제 세트를 풀때는 시간을 과감히 줄여서

풀었습니다.

2) 가로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저는 10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객관식 대비를 시작하였고, 가로풀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가로풀기의 장점은 전 범위를 빠른시간안에 1회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많고, 넓고 얇은 공부방법이 유효한 1차시험 특성상 (워크북을 정독하는 등) 한 단원 한 단원씩 마스터한다는 접근보다는, 1주에 5일 세법 가로풀기 40문제씩 2시간 잡고 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회계는 기베모의, 파이널이라는 잘 나온 교재가 있어 굳이 가로풀기가 필요 없었고, 상법은 객관식 상법, 경제는 다이어트와 일특 (300문제 5분 할 가로풀기, 하루에 60문제) 등으로 세법과 비슷하게 가로풀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풀기를 할 때도 문제당 몇 분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압박 속에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3. 동차기간 (2019년 3월~2019년 6월)

19년도 1차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에 충분한 점수가 나와 2차시험 계획을 세우며 1주일을 쉬었습니다. 1차기간에 원가관리회계를 단기특강으로 몇 단원만 챙겨갔기 때문에 동차기간에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재무관리는 자투리 강의를 활용하여 모르는 단원만 들었습니다. 동차기간에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원가, 감사 인강을 듣던 3월~4월초에도 회계, 세법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시반에 주 1회 연습서 스테디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4월달부터 진과목을 돌릴 때 회계, 세법 실력이 퇴보하지 않아 수월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는 하루에 세법3, 재무관리2.5, 원가3 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회계 감사 스테디를 했습니다. 평일 남는 시간에 그날 스테디 범위 감사공부를 했습니다. 재무회계는 휘발성이 낮고 자신이 있다고 판단해서 평일1회, 주말 1회 스테디 + 복습만 하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1주 60시간 목표로 공부를 하였고 마지막엔 체력적으로 힘들어 55시간 정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계감사를 제외한 4과목에 합격하였습니다.

동차기간에 과목을 버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회계, 세법이 자신이 있는 분들은 5과목을 다 가져가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차기간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 과목이 3과목 이상이라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과목을 버리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70점 정도를 목표로하여 단원을 부담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은 2번의 기회가 있는 동차생의 특권이기 때문에 버릴 단원은 과감하게 버리고 빈출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못하는 과목에 더 투입하여 5과목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을 추천하고 무리하게 유예생들이 다루는 주제를 가져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4. 유예기간 (2020년 7월~2020년 6월)

사실 저의 수험생활의 90%이상은 회계감사 1유예가 된 순간 끝났습니다. 1과목만 남는 경우 합격률도 95% 이상이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년도 2차 시험에서 57.1 점으로 회계감사를 떨어졌을 때 아쉬워했으나, 유예생활을 겪으니 자신이 동차 때 정말 부족한 실력으로 합격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계감사 과목은 유예생과 동차생의 실력차이가 큰 과목입니다.

저는 20년 2월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평일 4시간정도 공부하였고 5월달부터는 주 40시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1유예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방심과 시험장에서의 시간부족이라 생각하여 방심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GS를 수강하며 시간안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3월부터 유예생들과 스터디를 꾸려 감사기준서 내용을 묻고 답하며 세세하게 암기했던 것이 고득점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마음가짐

저는 수험기간동안 매주 완벽한 한 주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의 공부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하루하루 목표 시간, 일주일의 목표공부시간을 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막상 공부할 때는 하루 목표, 일주일 목표만 바라보고 공부하다 보니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회전을 경계했고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니라 실제 점수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투입시간 대비 기대점수가 적을 것 같은 단원은 과감히 버리고, 빈출 주제인데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앞글자를 따서라도 외우며 제 기대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시험진입을 고민할 때, 고시반에 들어갈 때, 1차, 2차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수기들을 읽고 주변 선배들, 친구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상황과 스타일에 맞고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을 취사선택하여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합격수기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방법일 뿐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만 선택하여 적용하시길 추천합니다.